

```
graph TD; RC[로마 주교 칼리스투스] --- PO[이의 대립 주교로]; PO --- PS[주석]; PS --- CS[창세기 27장, 29장]; PS --- DS[17장(다윗과 골리앗)]; PS --- YS[예언과 묵시에 관심]; PS --- LS[무사·관련 주제]
```

- Tree diagram illustrating the life and works of various early Christian exegetes, categorized by author and subject.

 - 1) 테르툴리아누스(260-225년경)**
 - 성장
 - 기독교로 개종한 북아프리카인
 - 카르타고에서 법학과 수사학 교육받음
 - 197년(40세) 기독교로 회심
 - But, 밀년으로 가면서 '몬타누스파에 가담'
 - [참고] 몬타누스파
 - 2세기 중반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학派
 - 예언과 계시: 예언과 계시를 강조. 몬타누스와 그의 두 딸 마시밀라는 자신들이 성령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며, 흥미로운 이단으로 정죄됨
 - 저술
 - 초기) 주로 신앙 변증에 집중
 - <이단에 반대하는 규정> <마르키온에 반박하며>에서 영지주의자 마르키온을 비판함
 - 이들의 성격 오용으로부터 성경을 수호하려 노력
 - 성경을 '호기심'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을 수 있다는 상상력을 활용함
 - 성경은 교회에 속한 것
 - 열성적으로 구약 사용을 옹호 (마르키온의 공격에 대항)
 - '그리스도는 모세가 발화한 내용 속에 현존한다' 주장
 -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부터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함
 - 창조주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
 - 율법은 백성을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
 -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
 - '하나님의 "후회"나 심경의 변화는 알레고리적이다'
 - "하나님이 맹세를 한다거나 분노를 표현한다거나 그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되었고 공포로 인해"
 - 성경은 마르키온의 가현설을 입증하지 않는다 (3.1-2)
 - [참고] 가현설 |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
 - 누가복음은 그것이 쓰인 대로 보호되어야 한다. 또 다른 설명한다 (4.2, 5)
 - 또한 마르키온에 대한 반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순서를 따른 연속 주석으로 해석하기도 함 (5.5-10)
 - 중기, 후기) 이단이나 신앙에 있어 "변절"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비판하기
 - 삼위일체에 대한 저술, <프락세아스에 반박하며>는 몬타누스주의를 비판함
 - 신학적 관점
 - 사도적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
 - 세속 철학과의 타협에 저항
 - 그는 '교리와 성경 해설'을 '씨실과 날실처럼' 엮으며 글을 씀
 - 성경에 근거해서 부활, 은혜, 하나님의 단일성 교리를 수호
 - 악의 문제에 대한 이교도적 호소력에 골몰하기도
 - 엄정한 윤리를 위한 기초를 성경 안에서 찾는다
 - 그의 수사법은 비타협적이고 매우 완강
 - 2)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(338-397년)**
 - 4세기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
 - 성장
 - 로마에서 교육 받음
 - 라틴어, 그리스어에 능통
 - 필론, 오리게네스, 아타나시우스, 바실리우스의 성경해석 연구
 - 밀라노 주교로 선출됨
 - 목회자이자 가르치는 주교
 - <성직의 의무에 대하여>
 - 주교나 교사의 역할을 강조 (시 34:11, 앵 4:11)
 - [시34:11] 젊은이들아, 와서 내 말을 들어라. 주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,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,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.
 - [앵4:11]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,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.
 - 성경해석
 - 주석) 창 1:1-26, 사무엘서 일부 및 열왕기상 일부(엘리야와 다윗), 시편, 데살론ики서, 1Corinthians, 1Timothy, 1Peter, 1John, Revelation
 - 주된 목적
 -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함
 -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에 도움을 주는 것
 - 창세기 1장
 - 부활을 언급
 - 부활은 하나님이 '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것'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
 -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창조에 함께 관여했다고 씀
 - [창1:1]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. | 성부
 - [창1:2]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. | 성령
 - [창1:26]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,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라. | 성자
 - 아가서에 대해서 기독론적 해석을 제시
 - [아1:2-3]
 - 2 여자: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,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. 임을 허락해주세요.
 - 3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,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로 허락해주세요.
 - 요한의 말을 포함하여 신약을 자주 언급
 - [사1:18]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정도로 깨끗해졌다.
 - 성경의 다양한 텍스트를
 -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
 - 그의 이런 작업은
 -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적과 동시에
 - 도덕적 가르침과
 - 영적이고 '현신적인' 목적을 가짐
 - 4) 암브로시아스터 _ 또는 위(pseudo) 암브로시아스터**
 - 4세기를 특징 짓는 인물
 - 저술
 - 다마수스가 로마 주교로 있던 시기(366-384)에 저술 작업을 함
 - '성경 해설'과 '13권으로 된 바울 서신 주석'을 남김
 - 신학적 성향
 - 로마에서 지내며, 유대교와 친밀감을 나타냄
 - 주교와 장로는 "하나님의 계율"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
 - 성경의 "문자적" 의미를 존중
 - 개별적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역사적·언어학적 컨텍스트를 면밀히 살펴봄
 - 5) 히에로니무스 (340-420년경)**
 - 성장
 - 4세기-5세기를 연결하는 인물
 - 뛰어난 번역가, 본문 비평학자
 - 필론,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, 특히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음
 - 안디옥 학파의 일원인 디오도루스, 테오도루스,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활동함
 - 저술 작업
 - 히브리어와 유대적 해석 방법에 정통**
 - 히브리어, 그리스어, 라틴어로 텍스트를 정립하는 작업을 함
 -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에 대한 라틴어 번역(불가타)을 함
 - 성경 비평과 번역 작업 및 광범위한 주석을 기술하기도 함
 -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목적으로 함
 - 독자들에게 다양한 전통들과 선택지를 보여주고자 함
 - 테르툴리아누스와는 다른 입장
 - 성경해석
 - "사랑의 노동"인 동시에
 - "위험천만하면서도 주제넘는" 일이라는 입장
 - 알레고리적 해석도 알고 있었음
 - 성경 텍스트의 '영적인' 의미를 찾아가는 알렉산드리아식 방법
 - 그러나 그는
 -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발견되는 성경의
 - 문자적 의미를
 - 해석의 시작점으로 삼았음
 - 그런 후에
 - 오리게네스에게서 끌어낸 "영적인" 해석으로 이행하기도 하였다.
 - 주석
 - 마태복음, 갈라디아서, 에베소서, 디도서, 빌레몬서, 요나서, 소선자서, 1Timothy, 1Peter, 1John, Revelation
 - 19세기 초부터 전개된 "신약 개론"에도 기여
 - 이사야의 시에 주목
 - 이사야를 예언자라기 보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
 - 성경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고 주장
 - "단어"가 아니라 "의미"를 번역한다고 말함으로써
 - "문자적" 의미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제한함
 - 성경을 모호함과 신비로 가득한 책으로 이해 (클레멘스처럼)
 - 2. 알렉산드리아 전통**
 - 1) 오리게네스 (185-254년경)**
 - 성장
 - 17세에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교장이 됨 (클레멘스 후임)
 - 창의적이면 다재다능한 학자
 - 변증가, 설교자, 철학적 신학자, 본문 비평가, 성경 주석가
 - 알렉산드리아에서 (로마제국의 문명 도시)
 - 그리스 철학 전통, 주체의 방법론, 기독교 교리를 교육받음
 - 저술
 - 저술의 3/4은 성경해설
 - 엄청난 다작가
 - 두 가지 종류의 주석으로 분류 (히에로니무스)
 - 스콜리아(일반주석) 또는 난외주(marginal note) 와
 - [참고] 난외주: 본문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에게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 것
 - 설교로 분류
 - <요한복음 주석>, <창세기 주석>과 성경 해설집, <잡문집>, <원리론> 등
 - 요한복음 주석 - 그의 성경 주석 중 최고 수준의 책
 - 원리론 - 신학과 교리에 대한 대표적 저서
 - <순교에 대한 권고><에스겔 주석>, 구약에 대한 설교, 신약 주석 집필, 6권의 원리론, 10권의 원리론, 12권의 원리론 등
 - 카이사레아에서 231-245년까지
 - 켈수스 반박>이라는 변론 (245-사망때까지)
 - 켈수스: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교도
 - 신학적 입장
 - 고전 문학과 그리스 철학에도 매우 해박
 - 다양한 형태의 영지주의자 주창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
 - 하지만 그의 사변은
 - 정통 교리로부터 (실질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) 일탈해갔음
 - 553년 제5차 공의회에서 이단 선고를 받음
 - 이후 그의 수 많은 저술을 금지되거나 소실됨
 - 사도적 전통, 신앙규범의 중요성,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을 믿음
 - 핵심적 관심사
 - 성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,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하는 문제
 - '성경의 모든 단어가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'고 주장
 - 모든 역사적 구절은
 - 육체에 비교되는 문자적 의미
 - 영혼에 비교되는 도덕적 의미
 - 정신에 비교되는 영적 의미를 가진다
 - 그의 주해 방법은
 - 주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에게서 가져온 것 (필론-4장)
 - '의미는 사다리와 같다'고 함
 - 가장 낮은 사다리의 출발하는 칸: '육체' 또는 '문자적 의미'를 가진다
 - 이러한 문자적 차원에서 성경은 모순을 포함할 수도 있다
 - "물질적 오류 속에는 종종 영적 진리가 보존되어 있다"
 - 언어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진술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들이 서로 반대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진술을 참이다"
 - 그는 자주 알레고리적 의미를 변증의 도구로 활용함
 - 주요 성과
 - 성경을 원어와 5개의 번역판, 총 6개의 칸으로 구성해 철저하게 비교한 6권의 원리론
 - 첫번째 칸, 히브리어 구약 텍스트
 - 두번째 칸,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내용
 - 나머지 네 칸, 다양한 판본의 70인경
 - 아킬라 판본
 - 심마우스 판본
 - 개역 70인경
 - 테오도티안 판본
 - 그의 관점
 - 그가 보는 '성경'
 - 2) 아타나시우스 (296-374년경)**
 - 4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
 - 성장
 -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 받음
 - 부제(deacon)가 됨 (319년)
 - 니케아 공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
 -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선출됨
 - 저술
 - 아리우스파에 반대, 칼케돈의 정통 기독론을 방어하는데 결정적 역할
 -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
 -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본질에 관한 "동일본질" 조항을 방어
 -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
 - 칼케돈의 정통 기독론이란
 -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정립한 것
 - 핵심은 '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본성이 있다'는 것
 -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진다
 -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확정함
 - 조직신학자, 변증가로 더 잘 알려짐
 - 신학적 입장
 - 변증적이고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 성경을 사용
 - 성경의 구절들은 신앙 규범(regula fidei)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
 - 예) "지혜"가 '창조된 세계'보다 먼저 존재
 -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주장
 -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상고하여
 - 심판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
 - 아타나시우스 자신도 성경을 부정하게 인용한 것도 보임
 - 구약을 스리스도에 대한 텍스트로 이해하기는 했으나
 - 그는 오리게네스보다는 성경의 '육체적' 의미를 존중하는 경향
 - [참고] '육체적'이라는 말의 의미
 -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
 -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
 - 1. 육체적(문자적) 의미
 - 2. 도덕적(정신적) 의미
 - 3. 영적(신비적) 의미
 - 주요 성과
 - 성경을 원어와 5개의 번역판, 총 6개의 칸으로 구성해 철저하게 비교한 6권의 원리론
 - 첫번째 칸, 히브리어 구약 텍스트
 - 두번째 칸,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내용
 - 나머지 네 칸, 다양한 판본의 70인경
 - 아킬라 판본
 - 심마우스 판본
 - 개역 70인경
 - 테오도티안 판본
 - 그의 관점
 - 그가 보는 '성경'

11

- 성경의 문자적, 역사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
오리게네스의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경계했음을 나타냄
- ### 3) 소경 디디무스 (313-397년경)
- #### 신학적 입장
- 오리게네스의 주해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
 - [참고] 영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김, 문자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
 - (그런데, 재미있는 것은) 그는 "문자주의자"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.
 - 안디옥 학파 주창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임
 - [참고] 역사적·문법적 해석: 성경의 문자적, 역사적 의미를 중시
 - 모형론적(typological) 해석: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
 - 니케아 신조를 옹호
 - 금욕적 수도사 운동의 지도자 (with 히에로니무스)
 - 텍스트의 '독자에게 관심'을 두는
 - 알렉산드리아의 변증적·목회적 전통을 계승
 - 독자가 "영적인" 성숙과 이해가 진보하는 데 관심
 - 해석은 문자적인 동시에 "영적인"(자주) 차원에서 발생
- #### 저술
- 주석: 창세기, 읍기, 스가랴, 시편 20편, 40편 강해
- ### 4)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(388-444년경)
- #### 성장
-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
- #### 신학적 입장
- 니케아 신조를 옹호
 - 안디옥 학파 및 시리아 교회와 갈등
 - 주해 방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논쟁
 - '기독론' 관련 격렬한 대립
 - 네스토리우스
 - 몇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(안도옥 학파의 주석가)
 - ↳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죄 당함 (위 둘 다, 431)
- #### 성경해석
- 알렉산드리아의 주해 전통에서 훈련 받음
 - 성경은 문자적인 것을 넘어 더 상위의 의미 차원을 탐색
 - 구약에 대한 그의 해석은 주로 기독론과 연관된 것
 - 신약에 대한 저술에서는 오리게네스보다 더 제한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임
- #### 저술
- 오리게네스의 주해를 기반으로 주석서를 펴냄
 - 이사야서, 소선지서, 마태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, 로마서, 고린도후서, 히브리서
- ## 3. 안디옥 학파
- ### 1)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(330-390년경)
- #### 신학적 입장
-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에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간주됨
 - 오리게네스의 주해방식에 반대
 - 즉, 저자보다는 독자의 측면을 중요시 한 것에 대해 반대
 - 성경 텍스트의 "영적인" 의미가 너무 쉽게 '해석자 또는 독자의 관심의 거울'로 변해버림을 지적
 - "알레고리적 의미보다는 텍스트의 역사적 이해"를 선호 (디오도루스의 저술)
 - 경직된 문자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움
 - "역사적" 의미란
 - 텍스트와 저자가 '삶의 상황 또는 배경에 의해 조건 지워짐'을 뜻함
 - 이를 <주해를 위한 기본적 원리>로 봄
 - "결코 테오리아(알레고리)라는 고차원적인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역사적 내러티브가 테오리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"
 - "... 하지만 테오리아가 역사적 토대를 제거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그렇게 되면 결과는 테오리아가 아니라 알레고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."
 - 기독론 논쟁에 개입
 - 테오도루스와 연관되어 함께 정죄를 당함
 - 발단기 '네스토리우스주의'로 규정되어 정죄 당함
 - [참고] 네스토리우스주의: '동일본질' 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는 위격을 가진 존재로 보는 교리
 - 실제로는
 - 디오도루스는 '니케아 신조의 기독론을 주장'
 -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함
 - ↳ 즉, 정죄당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읽힘
- #### 성장
- 안디옥과 시리아의 신학교 교장 역임
 - 타르수스의 주교 임명 (378)
- #### 저서
- 기독론 논쟁에 개입한 까닭에 대부분의 저술이 소실됨
- 시편 주석 (근래에 발견)
- ### 2) 몇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(350-428년경)
- #### 성장
- 안디옥의 신학교에서 디오도루스에게 배움
 - 트리스토무스의 친구
 - 시칠리아의 몇수에스티아의 주교 (392년)
- #### 신학적 입장
- 에베소 공의회에서 비난을 당함
 -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가 '네스토리우스'를 이단으로 고발
 - 디오도루스와 함께 테오도루스도 비난 당함
 - 하지만 그가 진짜 '네스토리우스주의'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음
- #### 그는 그리스도가
-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명확히 주장
 - 다만, 이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"어떤 방식으로" 연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불명료함
- #### 오직 성경의 언어만을 사용
- 형이상학적 사변의 활용을 거부함
- 70인경을 전적으로 의지 (친구 크리스토무스와 같이)
- 성경 각 책에 대한 테오도루스의 결론은, 대부분 근대의 '역사비평'과 일치한다.
- #### 시편
- 몇몇 시편의 제목을 거부
 - 어떤 시편은 마카베오 왕조 때 집필된 것으로 봄
 - 각각의 시편들은 각각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고 주장
-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
- '성경 영감설'과 연관시킴 (자하로풀로스)
- "테오도루스의 일차적 주해 원리는 다음과 같다."
- "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�이기 때문에"
- "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거나, 인간에게 무가치한 것이라 이 책에서 있을 수 없다."
- #### (필론, 오리게네스의) 알레고리 사용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.
- 다만, 알레고리가 성경 전체를 지배하거나 역사적 현실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
 - 진정한 테오리아는 예표론에 해당한다.
- #### 시편 2편과 110편에 대한 기독론적 주해를 인정함
- 이유는,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기독론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
- 하지만 대부분 그의 주해에는 '예표론적 해석'이 억제되어 있음
- 시편 68편을 기독론적으로 독해하는 것에 동의
- "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" (18절)
- 엡 4:8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는 토대에서 인정한다고 함
- [엡4:8]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"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, 포로를 사로잡으시고,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" 합니다.
- 안디옥 학파 중에서 가장 학식있는 학자로 일컬어짐
- #### 저서
-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주해
- 각 책들의 저술 시기, 저자에 대한 연구, 텍스트의 구조와 통일성, 역사적 배경, 정경성 등등을 검토
- 하지만, 네스토리우스주의의 연관으로 일부만 남아있음
- 일부 내용만 인용 혹은 조각으로 남아있음
- 창세기에 대해 세 권의 책 저술했는데 그 중 첫 번째 책을 탄인이 인용 (포티우스)
- 출애굽기 25:8-20(언약궤)를 포함한 출애굽기 주석의 발췌본
- 사사기 13:25, 16:17 주석의 발췌본도 남아있음
- 시편, 사무엘상하, 읍기, 전도서, 아가서 등도 저술했던 것으로 알려짐
- 마태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, 바울서신을 주해 한 것으로 보임
- ### 3) 요하네스의 크리스토무스 (347-407년경)
- #### 성장
- 디오도루스 밑에서 수학
- 테오도루스와도 친분
- 수도자적 삶으로 부으심을 느끼
-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로 섬김
- 여기서 했던 설교 덕분에 "황금의 혀"라는 별명을 얻음
- 정기적으로 성경에 대해 설교
- "전 세계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"라는 명예를 얻음
-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(398)
- 타락한 제국의 법정, 성직자, 교회 전반을 개혁하려 했음
- #### 신학적 입장
- 알레고리적 해석에 반대
-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을 비난
- 개혁을 향한 그의 명료한 연설은 적대자를 만들어 냈음
-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테오필루스
- 여제 에우도키아 (동로마 제국의 황후, 테오도시우스 2세와 결혼)
- 이단 선교와 함께 교구에서 쫓겨남
- (서방교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) 폰투스로 강제 이주당함
- [참고] 폰투스는 흑해 연안 아나톨리아 지방 북동부에 위치한 고대 지역
- #### 저작
- 보다 현대적인 비평 텍스트를 저술
- <니케아와 후기 니케아 교부들> 중 6권을 차지
- #### 성경 활용
- 70인경을 전적으로 의지 (친구 테오도루스와 같이)
- 주혜에서 장르와 성경 저자의 스타일을 설명
- 예) "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" (갈 1:4)
- "율법은 우리 죄를 구원하지 못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수도 없다"고 주혜함
- "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" (갈 1:7)
- 기만의 가능성과 사복음서의 통일성에 대해 논의
- "내가 곧 혈육과의 의논하지 아니하고" (갈 1:16)
- "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"를 논의
- "십자가의 어리석음" (고전 1:18)
- "이보다 더 경이로울 수 없다. 왜냐하면 십자가는 멀망해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표지이기 때문이다"
- 논쟁적 부분에 대한 주혜
- [갈4:22-31]
- [갈4:24]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.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.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

마태복음
[A.]

- ```
graph TD; Root[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] --- HisConcern[그의 관심]; HisConcern --- HisVoice['사도의 목소리' 또는 '천상의 나팔 소리'를 듣는 것]; Section4[4)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(393-460년경)] --- Section4_1[성장]; Section4_1 --- Section4_1_1[안디오에서 태어나 교육 받음]; Section4_1 --- Section4_1_2[수도자의 삶에도 입문]; Section4_1 --- Section4_1_3[키루스의 주교가 됨 (423)]; Section4_2[신학적 입장]; Section4_2 --- Section4_2_1[당대의 기독론 논쟁에 열심히 참여]; Section4_2 --- Section4_2_2[네스토리우스의 친구이자 조언자였음]; Section4_2_2 --- Section4_2_2_1[이런 배경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가 적대함]; Section4_2_2 --- Section4_2_2_2[키릴루스의 후계자가 테오도레투스에게 이단 선고를 내림]; Section4_2_2_2 --- Section4_2_2_2_1[그리스도를 두 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분리한 것에 대해]; Section4_2_2_2 --- Section4_2_2_2_2[이런 연유로 그의 저술 중 일부만 남아 있음]; Section4_3[그의 주요 작업 - 성경 주해]; Section4_3 --- Section4_3_1[그는 오리게네스, 디오도루스, 몽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를 인용]; Section4_4[저작]; Section4_4 --- Section4_4_1[주석서]; Section4_4_1 --- Section4_4_1_1[모세오경, 여호수아서, 사사기, 열왕기상하, 역대상하]; Section4_4 --- Section4_4_2[히브리어 실력에 대해 논란]; Section4_4_2 --- Section4_4_2_1[창세기 1:2)의 프뉴마(pneuma)나 루아흐(ruach)에 대한 해석]; Section4_4_2_1 --- Section4_4_2_1_1["영"이라기 보다는 '바람'이라고 주장]; Section4_4_2_1 --- Section4_4_2_1_2["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"(창 1:18, 25)]; Section4_4_2_1_2 --- Section4_4_2_1_2_1[하나님의 창조에서 결점을 찾는 일은 은혜를 모르는 일이라고 논평]; Section4_4_2 --- Section4_4_2_2[창 3:5] 하나님은,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,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, 하나님처럼 되어서,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,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."; Section4_4_2_2 --- Section4_4_2_2_1[이는 역설이다.]; Section4_5[주해 및 설교의 단편]
```

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

그의 관심

'사도의 목소리' 또는 '천상의 나팔 소리'를 듣는 것

4)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(393-460년경)

성장

  - 안디오에서 태어나 교육 받음
  - 수도자의 삶에도 입문
  - 키루스의 주교가 됨 (423)

신학적 입장

  - 당대의 기독론 논쟁에 열심히 참여
  - 네스토리우스의 친구이자 조언자였음
    - 이런 배경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가 적대함
    - 키릴루스의 후계자가 테오도레투스에게 이단 선고를 내림
      - 그리스도를 두 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분리한 것에 대해
      - 이런 연유로 그의 저술 중 일부만 남아 있음

그의 주요 작업 - 성경 주해

  - 그는 오리게네스, 디오도루스, 몽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를 인용

저작

주석서

  - 모세오경, 여호수아서, 사사기, 열왕기상하, 역대상하

히브리어 실력에 대해 논란

  - 창세기 1:2)의 프뉴마(pneuma)나 루아흐(ruach)에 대한 해석
    - "영"이라기 보다는 '바람'이라고 주장
    - "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"(창 1:18, 25)
      - 하나님의 창조에서 결점을 찾는 일은 은혜를 모르는 일이라고 논평
  - [창 3:5] 하나님은,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,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, 하나님처럼 되어서,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,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."
  - 이는 역설이다.

주해 및 설교의 단편